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2008년도 제13차 회의

1. 일 자 2008년 6월 26일 (목)
2. 장 소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실
3. 출석위원 심 훈 위 원 (의장직무대행)
이 승 일 위 원 (부총재)
박 봉 흠 위 원
김 대 식 위 원
최 도 성 위 원
강 명 현 위 원
4. 결석위원 이 성 태 의 장 (총재)
5. 참 여 자 남 상 덕 감사 윤 한 근 부총재보
김 병 화 부총재보 이 주 열 부총재보
송 창 현 부총재보 이 광 주 부총재보
김 경 수 금융경제연구원장 김 재 천 조사국장
장 병 화 정책기획국장 정 희 전 금융시장국장
안 병 찬 국제국장 이 상 배 금융통화위원회실장
민 성 기 공보실장
6. 회의경과

가. 의결안건

〈의안 제27호 — 2008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

(1) 의장직무대행이 한국은행법 제28조 및 한국은행의 금융기관대출규정 제9조에 의거하여 의안 제27호 - 「2008년 3/4분기 한국은행 총액한도대출의 한도 결정」을 상정하였음

(2) 위원 토의내용

일부 위원은 시중유동성 조절을 위해 총액한도대출제도를 활용하는 것에 대한 관련부서의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해 관련부서에서는 총액대출한도 감축의 유동성 수축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점, 동 제도가 원래 유동성 조절보다는 중소기업 지원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최근 경기둔화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여건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금은 총액대출한도를 조절할 시기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변하였음

다른 일부 위원은 최근의 중소기업대출 증가세, 시중유동성 및 지역금융동향 등에 비추어 3/4분기 총액한도대출의 한도를 2/4분기와 동일한 6.5조원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으며 나머지 위원들도 모두 동의하였음

(3) 심의 결과

의결문 작성·가결

의결사항

2008년 3/4분기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6.5조원으로 정한다.